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3기 제5강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창조적 감성과 문화의 힘'

“근면한 ‘개미’보다 창의적 ‘베짱이’들의 시대 문화전당, 호남 전통자산에 20 문화 담아내야”

대학때 우연히 소극장 무대 선 뒤 독일 유학 꿈 접어 문화예술은 큰 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아직 인식 부족 광주는 천혜 자연·한옥·판소리 등 유무형 자산 풍부

“국가 주도로 산업을 발전시키던 70~80년대, 호남은 공업화가 제일 느리게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은 산업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옛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겨 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오히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문화가 이윤을 낳고 산업이 되는 21세기, 호남의 전통 자산은 가장 훌륭한 발전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섯 번째 강사로 나선 김명곤(6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창조적 감성과 문화의 힘’을 주제로 50여 명 원우 앞에 섰다. 영화 ‘서편제’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명곤 전 장관은 국악인과 배우, 관료를 넘나들게 된 자신의 독특한 이력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에 진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유학과 교수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학 2학년 때 친구와 우연히 찾은 소극장 공연에서 찾아왔다. 갑자기 사라진 배우를 대신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던 그는 안정된 연기력으로 연극반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연극 무대에서 서기 시작했다. 연극을 하며 다양한 공연을 찾아다니던 그는 전북 김제 국악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음악은 서양음악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아버지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을 좋아했고, 베토벤 같은 서양 음악가가 가장 훌륭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우리 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독일 유학을 꿈꾸던 대학생은 그날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청년 여성이 대부분의 국악학원에서 그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재학

생이 판소리를 배우는 사실 때문에 수강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판소리를 즐겁게 배웠지만 학원비 6000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배움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국악을 멈춰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를 구한 건 ‘학벌’이었다. 학원비는 물론 생활비 때문에 매일 쪼들려야 했던 그는 ‘서울대학생’이라는 신분 덕분에 학원 선생님을 집에서 생활하며 무료로 학원에 다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박초월 명창과 동고동락하며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됐다. 박 명창에게 배운 것은 판소리뿐만 아니었다. 스승은 아끼는 제자에게 국악인들이 겪는 설움을 전하며 판소리 대신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권유했다.

“70~80년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판소리 명창들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광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놀고먹으며 돈을 번다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게으른 베짱이 같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가 커다란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 되면서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통과 문화가 가진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전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같은 영화나 소설 한 편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지만 한국사회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옥과 한복 등 우리가 가진 전통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문화유산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선조의 지혜가 녹아있는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김명곤 전 장관이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창조적 감성과 문화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근면·성실한 ‘개미’들이 발전의 초석이 됐다면 앞으로는 창의적인 ‘베짱이’들이 문화·예술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통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통문화를 통한 광주전남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광주

는 우리 전통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위에 한옥과 한식 같은 유형의 자산과 판소리 등 무형의 전통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호남의 전통과 이아기를 토대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을 담아낼 때 발전가능성은 무한할 것입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시, 송정역사 증축 건의키로

복합환승센터·주차장 등 국토부에 요청

광주 송정역이 호남고속철도 개통 할당 여도 안돼 비좁은 역사와 주차난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9일자 1·3면)과 관련해 광주시가 역사(驛舍)증축 건의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9일 “코레일과 협조해 올해 상반기 내로 광주송정역 이용객 현황 검토를 거쳐 역사 증축을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의 비좁은 대합실과 주차난, 교통혼잡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경부선과 비교하더라도 공단이 수요를 과소계산해

역사를 너무 작게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 안팎을 모두 증축하는 것을 공단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 증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송정역사의 연면적은 4858㎡로, 경부선KTX역사는 송정역보다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넓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애초(코레일)역사를 더 크게 건립하자고 했으나 철도시설공단과 전입 이사장이 재직 당시 축소 설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역사와 주차장 등을 추가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82시간만에...기적의 생환

네팔 카트만두 무너진 아파트서 20대 남...사망자 5천명 넘어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 카트만두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 갇혀 82시간을 버틴 2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관련기사 8면〉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이 지나면서 잔해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수색·구조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 ABC방송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무너진 아파트 단지에서

28세 남성 리슈 카날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25일 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지 82시간 만에 기적으로 생환한 것이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진 발생 5일째인 29일 현재 사망자는 5057명, 부상자는 1만915명으로 늘었다.

네팔을 위해 100억원의 국민성금을 모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한적)는 현재까지 도착한 성금을 집계한 결과 모두 4억여 원이 모였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네팔 카트만두 지진사고 돕기 성금모금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회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네팔 대지진 사고’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4월 30일 ~ 5월 31일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10613
기업은행 600-000160-97-616
농협 790095-59-557549
신한은행 5620-84-85057622
우리은행 622-929064-18-804
하나은행 261-913575-59937
- 예금주 : 전국재해구호협회
- 인터넷 기부 : www.relief.or.kr
- 휴대폰 문자 기부 : #0095 (1건당 2000원)
- ARS 기부 : 060-701-1004 (1통화 당 2000원)
- 성금모금 안내 : 1544-9595

한국신문협회·光州日報社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편을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5조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 5.15(금) 11:00 ~
2.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63-1 (주)ITS호남 본사 회의실(2층)
3. 회의 목적사항 :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

-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가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는 해산한다.
- 합병기일 : 2015년 6월 30일 24시
- 합병비용 :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보통주식 1,210,133주,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보통주식 0,662,453주,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보통주식 0,604,777주를 각 배정한다.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증가할 자본액 및 준비금의 총액 등
 - (1) 수권자본 주식주 : 800,000주에서 2,000,000주로 변경한다.
 - (2) 증가할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는 본진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금을 2,477,365,000원 증가하여 본진 합병 이후 자본금은 3,477,365,000원으로 한다. 본진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준비금은 본진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에서 본진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다만,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관계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준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가 승계할 수 있다.
- 합병 시 발생하는 신주의 종류 및 주식 수 등
 - (1)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는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해당 합병비용에 따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의 보통주식(이하 "합병신주")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 (2)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하여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는 본진 합병비용 결정을 위하여 산정된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 주식의 합병비용을 기준으로 단주의 금액을 산정하여 합병당시 종료 후 단주가 귀속 될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3) 단주 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외에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증부가 본진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 (4) 본진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호남,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부산 및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대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 될 경우 당사에 대하여 주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제1항에 기재된 임시주주총회일 이전까지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당사 본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통지는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당사에 도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주) 아이티에스 호남 대표이사 김 상 군